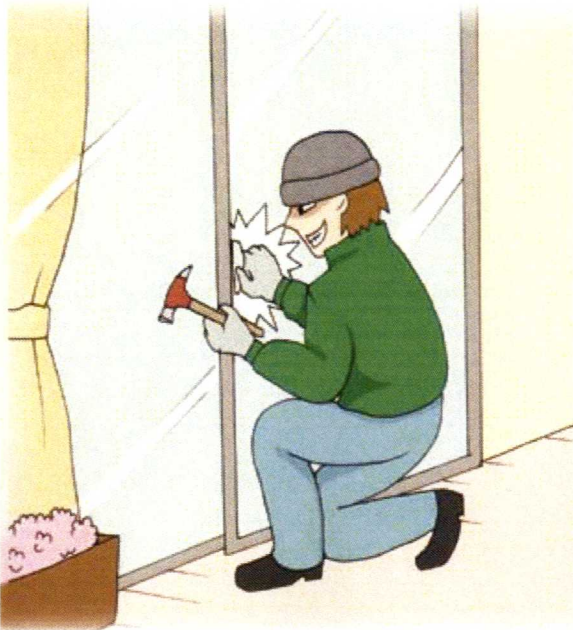


빈집털이 및 야간주거침입 절도

주거를 노린 침입범죄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요대책

- 현관, 뒷문 등의 출입구는 방범성능이 뛰어난 자물쇠로 교환하고 보조자물쇠도 설치한다(원 도어, 투 록).
- 아마도(雨戸), 셔터를 활용하며 창에는 방범창이나 보조자물쇠를 달고, 유리창에 방범필름을 붙이거나 유리를 이중접합유리 등 방범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 침입시 발을 디딜 수 있는 물건은 치워두고 높은 창에도 자물쇠를 단단히 잠근다.
- 방범용 센서등, 알람 센서 등을 설치한다.
- 정원수 등 범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사각을 만들지 않는다).
-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주변사람들(아파트 등은 관리인)에게 말을 해두거나 신문이나 우편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아파트 등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물쇠를 새로 바꾼다.
- 경비회사에 기계경비를 의뢰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 가급적 집안에 많은 현금을 두지 않는다.
- 통장과 인감을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 방범경보기 등을 가까운 곳에 갖추어둔다.

수상한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경계

- 범인은 반드시 사전에 현장을 살핀다.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는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상, 복장 등의 특징과 타고 온 차량번호 등을 기억하여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범행에 직면하면.....

- 자고 있을 때 침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았을 때는 수선을 피우지 않는다.
- 수상한 소리를 들은 경우에는 부주의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 침입자(범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한 틈을 봐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귀가 후 집안 상황이 수상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곧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웃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피해 후의 대응

-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악용되지 않도록 즉시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회사 등에 연락하여 도난신고를 한다.
- 깨진 창 등은 가급적 빨리 수리하여 보강한다(2차피해 방지).



CP마크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에는 'CP마크'가 사용됩니다.

노상강도

범인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범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

- 고가의 물건을 남의 눈에 띄게 소지하지 않는다.
- 통행이 적은 장소를 피한다.
- 심야에는 택시 등을 이용하고, 어두운 밤길을 걷지 않는다.

현금 소지에 주의한다

- 불필요한 현금은 소지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 나누어 소지한다.
- 남 앞에서 지갑을 꺼낼 때 지갑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은행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주변을 경계한다. 또한 일정한 날에 인출할 경우 시간과 다니는 길을 바꾼다.

방범용품을 휴대한다

- 방범경보기 등을 휴대한다(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법을 연습해둔다).



범행에 직면하면

- 무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
- 흉기를 가진 범인과는 거리를 두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한다.
- 틈을 타서 통행이 많고 밝은 곳으로 도망친다.
-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나 방범경보기 등을 활용한다.
- 범인 몰래 휴대전화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범인의 얼굴 및 복장 등의 특징과 범인의 사용차량번호 등을 기억하여 경찰에 알린다.
- 가능하면 범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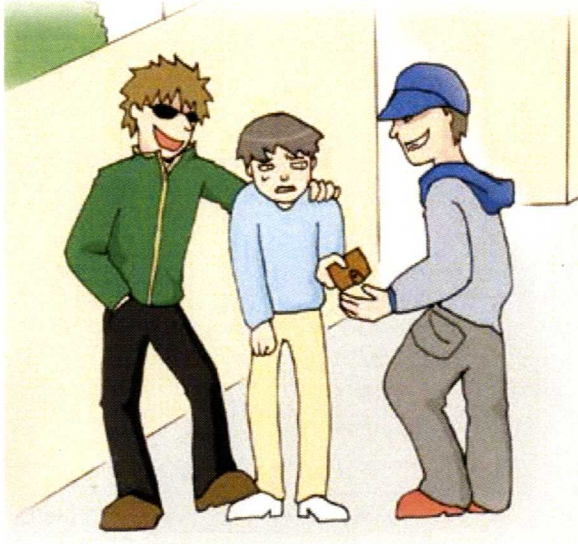


피해 후의 대응

- 범인이 도주하면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부상을 당하여 진찰치료를 받을 경우 가급적 사전에 경찰에 연락한다.
- 수사상,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취득한다(진단서 발급료의 공비부담제도가 있음).

공갈

범인이 당신을 노립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범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

- 인적이 없는 도로나 어두운 길의 통행은 피한다.
- 고가의 물건을 남의 눈에 띄게 소지하지 않는다.
- 주머니에서 지갑 등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의 도발에 부주의하게 응하지 않는다.
- 심야에는 여럿이 행동하고 혼자 걸지 않는다.

현금 소지에 주의한다

- 불필요한 현금은 소지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 나누어 소지한다.

방범용품을 휴대한다

- 방범경보기 등을 휴대한다.



범행에 직면하면.....

- 틈을 타서 통행이 많고 밝은 곳으로 도망친다. 특히 집단적으로 협박을 당한 경우 무리하게 저항하지 말고 도망칠 틈을 찾는다.
- 도망치지 못할 경우, 범인의 얼굴과 복장, 말씨, 사투리 등의 특징을 잘 기억한다. 범인이 도주한 방향과 차 번호 등도 기억한다.



피해 후의 대응

- 범인이 도주하면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하고, 범인의 특징과 도망친 방향 등을 전한다.



약점을 잡아서 협박당하는 경우도. 언젠가는 사건이 되어 밝혀집니다. 고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상해·폭행·무동기 범죄

갑자기 위협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 무동기 범죄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이상하다' '위험이 닥칠 것 같다' 라고 느끼면, 즉시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상해 등의 조폭범죄는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무리한 추월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이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양보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등 평소에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유의한다.
- 음주 후에는 대담해지기 쉬우므로 말다툼 등은 피한다.



범행에 직면하면.....

- 큰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거나 인근 가게나 가정집으로 뛰어든다.
- 눈치채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싸움이 난 경우, 상대방의 도발에 응하지 않는다. 손을 대지

않는다. '싸움은 쌍방 처벌'이라는 말대로, 손을 대면 양쪽 모두 상해의 가해자가 된다. 먼저 손을 댄 쪽이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후의 대응

- 범인이 도주하면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부상을 당하여 진찰치료를 받을 경우 가급적 사전에 경찰에 연락한다.
- 수사상,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진단서 발급료의 공비부담제도가 있음).



갑자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 부상자인지 환자인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사람인지를 확인한 뒤, 119번으로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당신의 도움과 신고로 구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괴 및 납치

어린이가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은.....

- 모르는 사람(청소년도 포함)을 따라가지 않는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주위 어른들에게 알린다.
- 등하교는 여럿이 함께 하며 한 눈 팔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면 문을 잠그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놀러 나갈 때는 가족에게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노는지, 몇시에 돌아오는지'를 반드시 얘기한다.
- 방범경보기나 호루라기, 라이트를 갖고 다닌다.

보호자는.....

- 함께 외출했을 때는 어린이한테 눈을 떼지 않는다.
- 아이가 외출할 때는 가는 곳, 귀가시간 등을 확인한다.

○ 아이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통학로에 있는 상점과 편의점, 고도모110반노이에(어린이 긴급 피난소) 등 긴급시의 피난처를 확인해둔다.

지역은.....

-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꼭 말을 걸어보는 등 지역 전체가 어린이를 지킨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반인의 경우

- 방범경보기 등의 방범용품을 갖추어둔다.
- 수상한 차나 수상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해둔다.
- 밤에 귀가할 경우, 통행이 많고 밝은 길을 고른다. 또는 가족에게 마중나와 달라고 한다.
- 귀가 후 자물쇠, 보조걸쇠를 확실히 잠그고 부주의하게 문을 열지 않는다.



범행에 직면하면.....

-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다, 아우성친다, 방범경보기 등을 울린다.
- 고도모110반노이에(어린이 긴급 피난소) 등 긴급 피난처로 달아난다.
- 붙잡히면 손을 물어뜯는 등 저항한다. 차에 억지로 태우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망칠 틈을 노린다.

목격하면.....

- 이웃의 어린이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발견하면 주저말고 말을 걸어 확인한다.
-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면 번호, 색깔, 차종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
- 수상한 사람과 차량을 목격하면 해당 정보를 경찰에 알린다.



피해 후의 대응

-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거나 끌려갈 뻔한 일 등은 가족에게 알리고, 수상한 사람의 특징과 차량 등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하게 경찰에 신고한다.
- 또한 학교나 유치원 등에도 연락하여 다른 아이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상담한다.